

광주·전남 식당 서빙로봇 늘고 있다

광주·전남 KT 서빙로봇 150대 돌파...매달 10대이상 늘어 알바 구하기 힘들고 고물가·인건비 부담에 선호 단순 전달 기능에 일자리 빼앗고 정서 사라져 거부감도

#. "(음식을)정반대로 가져 가 주세요. 확인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4일 낮 12시 무렵 광주시 북구의 한 한식 식당에 선 무인로봇이 음식을 싣고 고객이 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손님이 테이블 위 한 칸에 있는 태블릿의 메뉴판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카드로 마치자 로봇이 음식을 싣고 직접 테이블 옆으로 온 것이다. 이전 같으면 종업원이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해주던 모든 과정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었다. 주문한 손님이 음식을 받은후 확인 버튼을 누르자 로봇은 "감사합니다"라는 음성을 남기고 다시 주방으로 갔다.

광주·전남에도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서빙로봇'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고물가와 구인난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로봇 알바'를 채용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4일 KT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광주·전남 지역에

'KT AI(인공지능)서비스 로봇'을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150대를 판매했다. 도입 7개월 만인 올해 2월 100대를 넘겼고 이후 4개월 여만에 50여대를 추가로 보급했다. 한달에 10대 이상 팔로 서빙로봇이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사브사브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은 1년 가까이 서빙로봇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만족도가 크다고 이야기했다. 서빙로봇을 보고 신기해 하는 등 고객들의 반응이 좋을 뿐 아니라 인건비가 지속해서 오르는 데 아르바이트생 등 사람을 구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겪을 일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빙로봇이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이나 종업원 대신 서빙로봇을 선택하는 데는 사람을 구하기도 힘든데다 인건비마저 많이 오른 탓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 기준으로 해도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주휴 수당을 포함해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서빙로봇의 경우 24개월이나 36개월 약정 장기렌탈 형식이라 한달에 30만~70만원선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입차시에는 고장에 대한 서비스를 다 해주고 계약 만기때 로봇을 반납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자영업자들의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올해 3월 북구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정중운(38)씨는 "개업 준비할때 알바 구하기도 어려웠고 인건비 부담도 커 로봇을 렌탈했는데 이동 동선이 짧아지고 손님 응대도 줄었다며 직원들이 훨씬 편해 한다"면서 "2호점을 낼 때는 로봇을 최소 2대 이상 사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단순 전달 기능만 있는 서빙로봇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빙로봇이 있는 식당을 찾은 김 모(76)씨는 "로봇이 돌아다니는 식당에선 예전처럼 종업원이 반찬이 부족하다며 알아서 챙겨주는 정이 없다"며 "나 같은 노인들은 태블릿 주문도 여간 힘들게 아니고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든다"고 아쉬워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4일 광주시 북구 운동동의 한 식당에서 서빙로봇이 음식을 테이블로 가져오자 손님이 음식을 받고 있다.

코레일 추석 승차권 16~18일 100% 비대면 예매

16일 경로·장애인, 18일 호남·전라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22년도 추석 승차권을 오는 16~18일 온라인·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 예매 가능한 열차는 9월 8~12일 중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 전 좌석 예매 가능하다. 예매 첫 날인 16일에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자

인식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만 예매할 수 있다. 17일에는 경부·경전·동해·충북·중부내륙·경북선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18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사전예매 기간 동안 온라인·전화로 예약한 승차권은 오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반드시 결제까지

진행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스마트폰으로도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톡' 앱에서 제공되는 링크를 클릭해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입력해 직접 접속하면 된다. 오는 12일부터는 '명절 승차권 예매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철도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명절승차권 예약 방법을 미리 체험하거나 열차 시간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교육청, 급식비 234억 추가 편성

"전남 급식비 최하위 아니다" 한끼 당 1378원 추가 지원

전남교육청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급식비 234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질 높은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식품비 구입 예산으로 234억원을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급식비는 일반식품비와 친환경식재료비, 유전자 변형 없는 식재료 지원비 등으로 구성된다. 도 교육청은 애초 2022년도 본예산에 일반식품비 796억원, 친환경식재료비 259억원, 유전자 변형 없는 식재료 지원비 40억원 등 급식비 1095억원을 편성했다. 도 교육청이 추경에 일반식품비 구입 예산으로 234억원을 편성하면서 올해 급식비는 모두 132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이며, 지역경제 및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남도 및 22개 시·군은 매년 무상급식 식품비와 친환경 농산물, 유전자변형 없는 식재료 명목으로 975억원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도 교육청이 지속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보도에서 인용한 급식비는 친환경식재료비와 유전자 변형 없는 식재료 지원비가 빠진 것으로, 전남 급식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절대 적지 않다"며 "이번 추경 편성으로 1식당 평균 급식비가 1378원 추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 교사노조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급식비를 분석한 결과 전남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2학기 유초중고 정상 등교...선제검사 안해

감염상황따라 탄력 학사운영 대학도 대면 수업 원칙

교육부는 4일 "2학기 전국 모든 학교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등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은 대부분 유·초·중·고가 개학하는 이달 중하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 단위에서의 일괄적인 원격수업은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지면 1학기와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학교별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를 '집중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다만 1학기에는 권고·실시됐던 등교 전 선제검사는 2학기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개학 후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

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2개를 지급한다. 이 키트를 이용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정에서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며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생들은 2학기에도 1학기과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간 중구가 중지된다. 확진 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가 교육청,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중 결정해 안내한다. 대학에서는 학내 확산을 증가 등 방역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일부·전체 수업 비대면 전환, 단계별 출근 인력의 범위와 비율 조정, 학내 밀집도 저하 조치 등의 대응을 한다. 대학 역시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비대면 수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도록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동구, 문화전당역에 '실내 정원' 만든다

지하철역 안 4~5곳 310㎡ 규모

지하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역에 광주 최초로 실내정원이 조성된다. 광주시 동구는 산림청 주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공모(사업비 10억원)에 선정돼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그린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역 안에 실내정원을 꾸민다고 4일 밝혔다. 실내정원은 지하철역 안 4~5곳에 총 310㎡ 규모로 조성된다. 동구는 지난 2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진행

보고 ▲전문가 의견 수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동구는 역사 내 유기화합물 농도를 낮추고 공기질을 개선,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쉼터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하철 출입구 쪽에는 디자인과 공기정화 효과가 입증된 아이비, 탐승 플랫폼에는 지하 깊숙한 내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모스이끼 등을 식재하기로 했다. 동구는 광주 지하철역에 최초로 시도되는 실내정원이 지하철 이용객은 물론 중장·금남 상권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든든한 지키자 국민건강!

실손의료보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